

현장 사례로 본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 기능과 운영상 문제 및 활성화 조건*

Main Function, Management Difficulties and Activating Conditions of the Cooperative Child Care Sharing
Center Based on Field Cases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승미**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교수 김선미***

Dept. of Family Child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essor Lee, Seung-mie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Kim, Seon-mi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 IV. 연구결과 |
| II. 관련 문헌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과 절차 | 참고문헌 |

〈초록〉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에 의한 현장사례연구로서,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 및 활성화 조건을 탐구한 것이다. 지역(대도시·중소도시·군단위), 개소 시기, 운영기관, 위치, 맞벌이자녀초등전담돌봄 여부, 2020년 돌봄공동체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국 8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공동연구자가 각 센터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센터장 혹은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자료를 전사하여 34개의 하위범주와 12개의 범주를 구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기능과 운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활성화 조건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공동육아나눔터, 현장사례연구, 가족센터

〈Abstract〉

This qualitative study focused on the activation of cooperative child care sharing centers'. Eight centers nationwide were selected as example cases in accordance with region (large city, small and medium-sized city, county unit), opening time, operating institution, location, full-time care for dual-income children, and participation in the 2020 care community pilot project. Co-researchers visited each center together to observe the site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head of the center or dedicated staff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triangle verification and transcribed : the data were then grouped into 12 categories and 34 subcategories. From this, the following three topics were derived: the main functions, operational difficulties, and activation conditions. In conclusion, four suggestions are made: 1, proper relationship with the

*본 논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발전방안(2020)」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주저자: 이승미(smlee21@hanmail.net), <https://orcid.org/0000-0003-1222-8435>

***교신저자: 김선미(yupy1005@hanmail.net), <https://orcid.org/0000-0001-6987-2972>

Family center, the cooperative childcare sharing center, and the local care communities 2. activation plan through “solution of operational difficulties” 3. “extension” of the cooperative child care sharing center 4. the rol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local governments, and Family Centers.

Key words: cooperative child care sharing center, field case study, Family Center

I. 연구의 필요성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추진하여왔다. 그동안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수는 2010년 14개소에서 2015년 100개소, 2017년 153개소, 2019년 273개소, 2020년 9월 기준 299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또한 2015년의 297,565명에서 2017년의 664,898명, 2019년의 1,440,76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지난 10년간 양적인 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앞으로 도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개념은 2010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및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차성란·권혜진·조정현, 2011)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이 연구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공동육아, 나눔 그리고 터의 세 단어의 합성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공동육아나눔의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자 ‘공동육아나눔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적 시설’로서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2)은 2010-2011년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장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계속 진화하여 ①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 ②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정의되기에 이르렀다(여성가족부, 2021). 요컨대, 공동육아나눔터는 개별 가정단위의 고립된 육아를 넘어서 사회적 육아의 방식으로, 이웃과 함께 돌봄과 자원을 나누는 공간적 의미이자 지역사회 내 공동체적 돌봄의 거점이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초기 선행연구들은 지역단위의 공동체적 돌봄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민간의 자발적 활동과 정부지원사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개념 논의와 성과 평가, 운영방안을 제안한 연구(차성란 외, 2011),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특히 가족친화마을 만들기의 맥락에서 마을중심의 돌봄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육아나눔터 시범사업을 분석한 연구(김선미 외, 2011)가 있으며, 공동체적 돌봄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의 운영 및 이용현황과 지원요구, 여성가족부의 육아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현황과 개선 요구를 파악한 연구(유해미·김문정, 2013)가 있다.

최근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확대와 함께 실무적 입장에서 사업의 활성화와 효과적 운영을 위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육아나눔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매뉴얼 및 발전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나련·임예슬, 2017)가 있으며, 제주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방법론으로 운영방식의 유형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차성란, 2018). 또한 기존의 정책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품앗이 활성화방안을 제안한 연구(권미경 외, 2016)가 있다. 이 외에도 주거지 육아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환경적 요소를 분석·제안한 연구(김효정, 2019), 공동육아참여 어머니의 양육효과성 및 가족의 건강성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정미정, 2019) 등 연구주제도 다양화하고 있다.

선행연구 중에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인 경기육아나눔터 연구와 제주지역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실태 분석연구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이 있으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전국단위의 활성화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속에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어떻게 공존하고 상생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현장연구를 통해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돌봄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에서의 돌봄공동체 활성화의 출발점이 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장 방문 및 실무자 면접을 진행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방식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할 것이다.

II. 관련 문헌 고찰

1. 공동육아나눔터 주요 기능

사회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심화, 그리고 공동체 네트워크 약화 등으로 가족 내 고립된 육아, 엄마가 전담하는 독박육아 등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육아방식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이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이다(여성가족부, 2021).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공간에서 자녀돌봄이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며, 아이의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난감과 도서의 대여가 가능하다. 주로 부모가 영유아를 동반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온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방식은 2018년부터 다양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를 위해 초등학교 자녀를 방과 후 돌봐주는 '맞벌이 가구 자녀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20년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공동육아나눔터를 긴급돌봄시설로 전환하고 만 2세~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따라서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간의 소통과 연대의 장 및 교육과 정보제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맞벌이가구 자녀의 돌봄서비스와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아동에 대한 안전한 돌봄과 보호의 장으로서의 역할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겠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돌봄공동체의 기반이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부모와 아이를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김숙자, 2018). 차성란(2018)은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여러 명의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기본적 기능

외에 참여자들이 공동육아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유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이의 입장에서 공동육아나눔터란 공간과 시설로서의 물리적 환경 외에 또래의 부모 및 교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활동이 이루어지는 인적 환경이며, 유년기 삶을 채워나가는 성장환경으로 작동하게 된다.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어려움과 이용자들의 요구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어려움

공동육아나눔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차성란, 2012)에 따르면 실무자들은 마음에 맞는 가족품앗이 팀 구성하기의 어려움에서부터 홍보, 품앗이활동 지원, 장난감리사이클링 관리, 외부의 공동육아나눔터 확보를 위한 자원연계 등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실무진 대상의 심층면담분석(유해미·김문정, 2013)에 의하면, 외부형 공동육아나눔터는 영유아 부모들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 내 도서관 등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쉽게 이용하는 장소가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주된 개선 사항으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리적 접근성 강화, 전문 인력배치, 운영비 지원 현실화, 이외에도 품앗이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강화와 참고 자료집 발간 등을 지적하였다.

경기육아나눔터 실무자 대상 조사에 의하면 나눔터 관리자의 비율은 유급자원봉사자 > 기타(시간제 근로, 시니어 일자리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직원으로 나타났다. 보조인력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다른 업무와 겸업하는 담당자가 예산·정산 등의 행정적 처리 뿐 아니라 나눔터의 프로그램 진행이나 나눔터 공간관리까지 담당해야하는 상황으로, 담당자의 업무가 매우 과중함을 의미한다. 또한 담당자 대부분은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나 홍보가 어려우며, 외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확대나 다른 지역자원 연계와 같은 외부와의 연계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이나런·임예슬, 2017).

2)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들의 요구

시범사업 담당자와 참여자 대상의 선행연구(차성란, 2012)에 의하면, 영유아 자녀에 비해 초등학교 자녀는 단절적, 연계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돌봄 특성은 품앗이사업에서 방과후 돌봄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센터의 이용가능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부모들은 보육시설이용 자녀나 맞벌이가정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희망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에 보육교사나 아이돌보미 등의 상시인력을 배치하여 부모들이 언제라도 맡길 수 있는 상시돌봄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있었으며, 부모들이 부족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 인력이 공동육아나눔터에 배치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품앗이 참여자들은 품앗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앗이 참여자를 위한 가족축제, 간담회나 보고회, 품강좌 등을 하지만 품앗이팀이 안정되고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간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좀 더 넓은 공간, 특히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원했으며, 별도의 활동공간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나눔터 이용자들은 집과 가까운 곳에, 여러 곳에 설치되어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공동육아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연구(유해미·김문정, 2013)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참여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낮은 정보 접근성과 품앗이 역량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선 요구로는 품앗이 활동 공간 제공, 초기 인적·물적 자원 지원, 전담인력 배치, 품앗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품앗이 운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참여자들은 공간 확보 및 확대, 전담인력,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제기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품앗이사업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차성란, 2012; 유해미·김문정, 2013; 이나련·임예

슬, 2017)에서 품앗이 역량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도시지역에 비해 중·소도시나 도농복합지역의 품앗이 참여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나 경험 부족,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과 절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공동육아나눔터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자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현장 선정에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소재 지역(대도시·중소도시·군단위),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시기, 운영기관, 공동육아나눔터 위치(센터 내부·외부 등), 맞벌이자녀초등전담돌봄 여부, 2020년 여가부 돌봄공동체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서 8개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사례로 임의선정하였다(표 1 참조). 인터뷰는 2020년 8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각 센터당 면접시간은 2-3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참여자와 면접 일시의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1> 공동육아나눔터 선정기준에 따른 사례별 주요 특징

지역	주요 특징
서울 서대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지역으로 가족센터에서 외부형 2개소 운영(2013년 개소) 센터 외부의 자치회관, 민간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 맞벌이가정초등전담돌봄서비스 실시(1개소)
인천 연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지역으로 가족센터에서 외부형 2개소 운영(2013년 개소) 센터 외부의 민간빌딩 내,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치
광주 남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지역으로 가족센터에서 내부형 1개소 운영(2017년 개소) 2020년 돌봄공동체시범사업 진행 중
세종특별자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연기군에서 세종특별시로 전환·확대된 지역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역마다 설치, 12개소를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2014년 개소) 행복주택 관리동(1), 군관사(1), 공공기관(10) 위치
경기도 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도시이나 동탄신도시로 인구(특히 젊은층)가 유입됨에 따라 자녀돌봄 요구가 확대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외부형 5개소 운영(2017년 개소) 군부대(1), 행복주택 관리동(1), 공공기관(3) 위치
충남 서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중소도시지역으로 가족센터에서 4개소 운영(2018년 개소) 어린이도서관(1), 농협빌딩(1), 민간아파트 관리동(2) 내 위치 초등전담돌봄서비스 실시(1개소)
전남 광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중소도시지역으로 가족센터에서 내부형 1개소, 외부형 2개소 운영(2016년부터 개소) 통합센터 내(1), 민간아파트 내(1), 농협 내 문화센터(1) 위치 맞벌이가정초등전담돌봄서비스 실시(2개소)
전남 강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군단위지역으로 위스타트 강진 글로벌아동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만 위탁운영(2019년 9월 개소) 강진커뮤니티센터 내 위치

〈표 2〉 인터뷰 일시 및 대상자 주요 특징

지역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일시
서울 서대문구	센터장, 가족서비스1팀장, 공동육아나눔터 담당(1)	20/08/18 오후 4시-7시
인천 연수구	센터장, 가족사업지원팀장, 공동육아나눔터 담당(2)	20/08/06 오후 2시-5시
광주 남구	센터장, 문화특성화팀장, 공동육아나눔터 담당(1)	20/09/09 오전 10시-12시
세종특별자치시	센터장, 총괄팀장, 지역공동체팀장, 공동육아나눔터 담당(2)	20/08/21 오후 2시-5시
경기도 화성시	총괄팀장, 공동육아나눔터 담당(2)	20/10/07 오후 3시-6시
충남 서산시	센터장, 가족교육팀장, 공동육아나눔터 업무 총괄담당(1)	20/10/08 오후 1시-4시
전남 광양시	센터장, 운영지원팀장, 공동육아나눔터 담당(2)	20/10/05 오전 10시-1시
전남 강진군	센터장, 공동육아나눔터 담당(1)	20/10/05 오후 4시-6시

실무자 인터뷰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주요 이용자 특성, 운영시간, 위치 및 공간 구조, 상시프로그램 내용, 운영인력 현황, 가족품앗이 운영방식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실무자들의 의견 파악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의 기능과 역할, 이용자들의 반응과 생각, 이용자들의 요구,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개선점 등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틈새돌봄의 보완가능성, 공동육아나눔터 환경 및 공간구성과 활용방안,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녹취 동의에 의해 녹취한 자료는 전사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분석(分析)하되, 전사-코딩-주제의 발견이라는 질적 연구방법에서의 일반적인 분석방법(김영천, 2013)을 적용하여 본문을 반복하여 읽으며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원자료에서 등장하는 단어나 주제 등에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여 여러 차례 범주화작업을 거쳤다. 최초 34개의 하위범주를 다시 12개의 범주로 묶어내고, 최종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기능과 운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활성화 조건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표 3〉에 하위범주를 총괄 제시하였고, 이하 본문에서 34개 하위범주를 도출한 상세한 인터뷰내용들을 간략화하여 제시하였다.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1) 다수의 현장과 실무자 인터뷰자료를 간 검증, 2) 공동 연구자 간 검증 및, 3) 연구진과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三者間 석달 간격을 두고 실행한 2차례의 검증 등 3차원의 삼각검증을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 자신이 척도가 되어야 하므로 잠정적 가설은 변경되기도 하고 새로 발견되기도 함으로 삼각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삼각검증의 예로, 다수 현장과 실무자 인터뷰로부터 연구초기 잠정적 가설에 없던 가족센터의 축소판 역할에 대한 필요와 심화된 기능을 하는 분소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발견되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여성가족부 담당자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관리자와 자료 분석결과를 점검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어려움과 활성화조건이 현장 조사 전 개괄적이고 피상적이거나 파악하고 있었던 것들과 일치하는지 심화된 것인지 그리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위치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을 연구자들이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전국 8개 지역을 방문하여 센터장 및 실무자와의 면담으로부터 구성한 자료에서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 기능과 운영상의 어려움 및 활성화 조건들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속하는 개념들의 범주 및 하위 범주들을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 기능과 운영상의 어려움 및 활성화 조건들

하위 범주	범주	구분	
지역 주민 소통과 교류	주민의 소통과 교류 연대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 기능	
가족품앗이(중심성/효과)			
육아부담과 스트레스 해소	육아부모 지원		
육아 공간 제공			
상시프로그램 운영			
맞벌이가정 자녀 돌봄 지원	돌봄지원		
돌봄공동체 통한 간접 지원			
건강센터의 축소판/분소역할			

하위 범주	범주	구분
인력 부족	인력문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상의 어려움
경력직 부재		
부가업무 과중		
실무자의 센터 내 위치		
공간 내부	공간문제	
공간 외부		
혼자 오는 아이들	관리문제	
운영시간 연장 민원		
예산		
실적산출		
명칭문제		
홈페이지		
주민주도형 공동육아나눔터 지향의 문제		
내부 공간	공간과 시간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조건
외부 공간		
운영 시간		
증설이유		
공공기관에 증설	증설	
아파트에 증설		
보조인력 충원	인력 확충과 질 관리	
우수인력 채용과 관리		
처우 개선		
경쟁기관과의 차별성/확장성		
조례와 홈페이지	운영방안	
예산사용		
통합센터와의 관련성		

1.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 기능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 기능은 네 가지로 주민의 소통과 교류 및 연대, 육아부모 지원, 맞벌이가정 자녀 돌봄 지원 및 가족센터의 축소관/분소 역할로 확인되었다. 먼저, **1) 주민의 소통 교류 연대**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 주민의 소통·교류·연대 및 가족품앗이의 중심성과 효과성을 살펴보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 '부모 대신 돌봄'보다는 '소통과 교류공간, 정보교환·공유를 위한 공간이다' - 이주민이 대다수인 세종, 이 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육아스트레스를 해소 - 서산시에 돌봄기관은 많고,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기능을 할 필요는 없고, 소통과 교류가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 기능 - 다문화가족 포함 모든 가족을 위한 공간,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 주민회의, 가족영화제, 노인들과의 교류공간으로 활용 - 공공기관에 설치된 공동육아카페는 세대 간 소통의 장	지역 주민 소통·교류·연대 주민 소통 교류 연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 품앗이를 계기로 사회적 모임이 가능. 육아정보를 소통하고 나누는 기회 얻음 - 가족품앗이는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으로 활용 - 엄마품앗이에서 시작하여 아버지 참여로 이어짐 - 가족품앗이, 코로나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공동육아나눔터의 중점사업의 가능성 - 재능과 시간을 함께 나누고, 년 2회 12개소 가족품앗이 전체모임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 마련 - 나눔장터 마련, 마을축제 참여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연초, 품앗이 단합대회 통해 아버지 참여로 결실이 맺어짐 - 가족품앗이로 부모들이 성장 기회 부여받고, 아이들 성장 후, 가족봉사단으로 혹은 품앗이 리더들이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거나 센터 실무자가 되기도 함 - 공동육아나눔터 기능 중 품앗이 참여가 가장 중요함, 돌봄 기능보다는 가족품앗이가 중요함. 이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가장 중요함 - 세종시는 가족품앗이에 중점을 둬. 자발적으로 맺어오거나 맺어주기도 함, 품앗이 리더를 코디네이터로 양성하여 설명회 주도하게 함 - 품앗이 리더들이 재능기부형식으로 활동	가족품앗이 (중심성/효과) 주민 소통 교류 연대

운영자들은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것 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교류·연대에 있다고 본다. 젊은 이주민이 많은 신도시 주민들이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만나고 사귀고 또 주민회의나 가족영화제 그리고 노인들과의 교류공간 등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가족품앗이가 지역 주민 소통·교류·연대의 핵심을 이룬다. 주민들이 스스로 맺어오거나 실무자가 맺어주는 가족품앗이는 개별 품앗이모임을 통하여 육아정보도 공유하고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며 전체모임을 통하여 엄마 품앗이로부터 아빠들의 참여로 이어지며, 재능과 시간을 나눈다. 더 나아가 단합대회, 나눔장터, 마을축제, 시티투어, 공연관람, 연말 콘서트 등의 더 큰 규모의 만남도 이루어 낸다. 가족품앗이 활동을 통해 부모들도 성장할 뿐 아니라 가족봉사단이나 품앗이 리더로서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기회로 연결되는데 간혹 센터의 실무자로 채용되기도 한다.

두 번째 공동육아나눔터 주요 기능으로 2) 육아부모 지원이 있다. 전업주부와 육아휴직 중인 아빠를 포함한 육아부모가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데리고 가정 이외 제3의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주간 이용 이외에 맞벌이 부모의 저녁 이용도 있으며 상시프로그램 참여자나 가족품앗이 회원이 아니라도 많은 수시 이용자가 있다. 인천 연수구 합박 공동육아나눔터는 소수 고려인이주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육아 공간이 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육아휴직 중인 아버지의 활용 - 아빠가족품앗이 운영으로 아버지 육아스트레스 해소 - 오후에 초등학교 4-5학년과 부모들이 오기도 함 - 맞벌이 경우에 저녁에 오며 아버지 참여율도 높음 - 상시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그냥 오는 사람이 많음 	육아부담과 스트레스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 갈 곳이 없는 이주민에게 유용한 공간임. 이용자 중 선주민 대 이주민 비율이 6대 4. 평소 이용자 90%가 고려인. 하루 3-4시간 장시간 머뭇 - 대기가 오래되어, 어린이집에 못 가는 유아들과 부모들이 오후시간에 이용 - 공간제공기능도 중요. 황사 때문에 외출이 불가할 때 넓고 쾌적한 공간제공 - 강진군에서는 18세 미만 자녀와 부모들의 돌봄공간 	육아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프로그램은 공동육아나눔터 홍보용으로 활용 - 아이들에게 협동과 공동체 경험 부여하도록 구성 -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므로 통역사를 활용하여 운영 - 오전 영·유아, 오후 유아와 초등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상시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대기 중 가정육아를 해야만 하는 경우, 가정에서만 육아보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활용한 육아가 선호된다. 제3의 공간이 절대 부족한 강진군에서는 오후 1시-9시까지 육아부모들에게 중요한 공간이 되며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까지 이용자가 확대된다.

상시프로그램은 공동육아나눔터 홍보용으로도 활용되지만, 오전/오후의 주 이용 아동 연령에 맞추어, 그리고 한국어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에게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면서까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동’과 같은 ‘가치의 교육’과 ‘공동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공동육아나눔터 주요 기능으로 3) 돌봄지원을 들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제1의 기능은 아니지만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돌봄지원과 돌봄공동체를 통한 간접지원으로 부모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서대문구와 전남 광양시, 충남 서산시가 별도로, 전남 강진군은 부모동행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에 함께,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전담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 돌봄은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에 의한 긴급 야간돌봄은 틈새돌봄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동에 있는 꼬도담터는 맞벌이가정 자녀돌봄 지원 - 광양시, 아파트 단지 내 초등전담 돌봄, 학습프로그램도 개발 운영 - 2회기 상시 프로그램 운영 - 서산시, 다른 돌봄기관들이 많은데 같은 역할을 해야 하나 특히 상시 일시 돌봄에서 맞벌이 가정 자녀 10명에게 프로그램 비용이 집중 사용되는 형국으로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면 좋겠음 - 강진군,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 덜어주고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필요한 36개월~ 8세 아동의 야간 돌봄 지원하는 mampan 야간 돌봄터 	맞벌이가정 초등자녀 돌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활동가들이 ‘부모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4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운영 - 개소당 600만원의 급간식비, 프로그램 및 재료비 지원으로 크게 도움됨 - 운영지원 코디네이터 역할, 돌봄공동체 간 상호 배우기, 돌봄 주체 어머니들이 공식적 경력 쌓는 기회로 활용 	돌봄 공동체 통한 간접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주요 기능의 마지막 범주에 4) 가족센터의 축소판/분소역할이 포함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의 브랜드 사업으로서, 건강가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모든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자체별로 1개소인 가족센터는 주민들의 접근성에 큰 한계를 지닌다.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하여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대상자들

모집하여 부모교육과 문화사업 그리고 상담을 직접 실시하거나 센터에서 실시하는데 참여하도록 연계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이나 상담 문화 등 통합센터 사업과 연계 - 건가센터의 축소판으로 젊은 부부가 많은 곳에는 설치 확대 필요 - 거리가 먼 조치원역과 행복아파트 내 2개소에는 센터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 - 외부형 공동육아나눔터에 순회상담과 상담소 설치로 본격적 분소역할 - 화성시, 넓은 지역에 센터는 하나, 공동육아나눔터가 센터의 분소역할- 사업홍보도 하고, 대상자 모집도 함 - 부모교육 등 다양한 사업 실시하는 센터의 분소 역할 - 공동육아나눔터는 센터의 '브랜드 사업'으로 건가센터만이 할 수 있는 것 - 부모교육도 가능하며 상담과의 연계 등 모든 사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가족센터 축소판/ 분소

세종시나 화성시처럼 복수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증설 중인 곳에서는 외부형 공동육아나눔터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순회 상담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세종시는 모든동에 하나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가족센터의 분소로 인식하고 운영 중이다.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상의 어려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상의 어려움은 네 가지로 인력문제, 공간문제, 관리문제, 주민주도형 공동육아나눔터 지향의 문제로 압축되었다. 먼저, 1) **인력문제**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상의 첫 번째 어려움으로 인력부족, 경력직 부재, 부가업무 과중, 실무자의 센터 내 위치라는 네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에 전담인력 1명으로는 절대 부족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 가기, 출장, 연차 사용 등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부모 非동반 초등전담돌봄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동선 파악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 특성으로 야간운영이 필요한 전남 강진군의 경우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데, 전담인력 한명만으로는 운영시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할 수가 없다.

최근 야간이나 주말운영의 경우 추가인력이 지원되고 있는데, 평소에도 1개소에 2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시간제, 기간제,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화성시와 같은 곳도 있고, 많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장난감 정리 등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아사업의 노인들(할머니들)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고 세대 간 교류나 소통의 역할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소통이 어렵고 건강상태 등으로 공동육아나눔터의 보조인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 당 1명의 전담인력으로는 인력이 부족함 - 대체인력이 필요하여 시비 지원을 받고 있음 - 여러 개 나눔터가 있는 세종, 추가인력을 국비지원 나눔터에만 활용할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없음 - 1인으로는 연차도 못 쓰고 출장도 못 감. 화성시는 시비로 지원 - 매일 이용대장 기록, 전담인력이 25명 아이들의 동선파악. 일상 벗어나는 스케줄 발생 시 부모 확인 등 전담 1인으로는 부족 - 시간제 추가 인력 있어도 부족, 초등전담돌봄 최소 2명 필요 - 출장·회의·화장실 가기 힘든 1인의 전담인력, 3시간씩 20일 근무하는 추가인력 지원으로 다소 해소/ 그 지속성 불안, 야간 주말 이외에도 추가인력이 필요함. - 노인인력을 지원받아도, 소통도 어렵고 건강상태도 적합하지 않음 - 강진군, 1시9시 운영으로 오전 시간 운영 요구 미실현, 주간돌봄 가능하도록 공간 인력 예산 확보 필요함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경직으로, 경력직원 유지 어려움 - 호봉 챙겨주려는 공동육아나눔터 지침이 통합센터 지침과 다름 - 4대 보험만 되고 제 수당 지급 불가한 계약직이 원칙으로서 재계약이 되면 무기계약직이 되므로 일할 만하면 그만 두어야 함 - 그에 따라 전담인력 경험 축적 어려움 	경력직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난감, 인기가 좋아 코로나상황에서도 실적이 많으나 장난감 때문에 주말운영 요구 민원이 많고 본연의 업무보다 부수적 업무에 치중하게 되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적정선을 고민하게 됨 - 조리 취사 시설은 담당자의 업무를 취사 등 보조 인력으로 하향시킬 우려가 있음. 긴급돌봄 시에도 배달은 가능하나 취식은 금지함. - 한가원 DB에 입력해야하고 또 엑셀 자료에 따로 입력해야함. 실적 보고가 중복되어 업무가 많음 - 복수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지자체가 입찰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두 의존 	부가 업무 과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근무로 소속감이 없음. 동일한 처우와 순환보직이 필요 - 부모교육 등 다양한 사업 실시하는 센터의 분소역할 해야 함. 따라서 실무자가 센터 사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함. - 외톨이라는 생각, 센터 회의와 복리후생도 배려하지만 한계가 있음 	실무자의 센터 내 위치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사용 지침은 사업수행기관의 직원 인건비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호봉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4대 보험 이외 제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 계약을 갱신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므로 계약직이 원칙인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은 일을 할 만하면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으로, 경력을 쌓은 전담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공동육아나눔터에 활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전담인력의 과중한 부가업무도 인력문제에 해당한다. 전담인력은 장난감 관리와 실적 관리, 서면보고 및 엑셀 입력 등 상이한 방식의 다중 실적보고로 업무과다를 겪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내 취식의 허용여부는 전담인력의 업무과중을 초래할 수 있어서 각 센터에서는 허용의 범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복수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증설하는 경우 시가 입찰부터 인테리어 비품구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면 운영자들과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재량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 맡겨주는 것을 선호하는 화성시 사례도 있으나 향후 공동육아나눔터 증설 시 지자체의 역할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기관인 센터 역할간에 분담의 원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력문제 중 센터장들이 주의하고 있는 문제는 전담인력의 센터 내 위치이다. 센터 외부에 근무하므로 소속감이 없고, 처우도 지자체마다 지침이 달라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센터장이 재량껏 복리후생으로 보완하기도 한다. 공동육아나눔터가 가족센터의 분소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면, 센터 업무를 숙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다. 회의 참석이나 순환보직을 통해 센터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협력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상 어려움의 두 번째 범주에 2) **공간문제**가 있다. 현재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충분한 공간에 쾌적한 환경을 갖춘 경우부터 협소하고 낙후된 시설로 운영되는 곳까지 다양하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이 협소함. 프로그램실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 동시 진행 곤란 - 한 공간에서 장난감도서관, 품앗이, 상시프로그램 모두 운영. 분리된 공간이 없어서 힘들/나이 다른 두 아이의 엄마, 한 아이는 데리고 나가있어야 함 - 프로그램 할 때 일반이용자들, 옆 매트에서 대기. 공간이 분리되어야 함 - 부모들이 같은 공간에 초등학생이 많으면 안전에 불안 해 한다. 함께 이용하려면 공간이 분리되어야 함 - 낙후된 곳이 많아 리모델링 비용지원이 필요 - 초등돌봄이 중심이 되는 혼합형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3-4시 대에 공간 활용이 겹치는 경우가 빈번 - '1시-9시', '4시-9시' 야간 일일돌봄과 공간이 겹쳐 프로그램 실시 어려움 - 공간 분리가 안 되는 강진국 공동육아카페는 1시-5시까지만 운영, 연장운영에 대한 민원이 많음 	공간 내부 공간 문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전담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 혼합형태로 공간이 겹치는 경우, 2층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야간 돌봄 실시할 예정 - 높은 건물 높은 층에 입지, 주차장 협소하여 주민들 접근성이 낮음 - 20평인 동탄 행복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평수가 적어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아이들이 없어 이용률이 낮음 - 건물 내부 안쪽에 있어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고, 도로변에 인접하여 영·유아보다는 초등학생 이용자가 많음 - 장난감도서관과 입구가 같아서 프로그램 진행 시 불편함 - 아파트단지 내 설치로, 경로당 소음이 있고, 주차 문제 및 아파트 외부인 이용의 낮은 문제가 있음 	공간 외부

공간문제는 내부문제와 외부문제가 있는데, 내부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협소함으로서,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연령별 구분, 또는 상시프로그램이나 가족품앗이 수시 이용자별로 용도에 맞는 공간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동시에 세 가지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밖으로 나가 대기하거나 귀가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도 벌어진다. 초등학생 전담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혼합형으로 운영하거나 수시이용공간과 야간돌봄을 한 공간에서 실시하는 경우 공간구분의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용자의 연령과 상시프로그램, 가족품앗이활동 및 수시이용자를 고려한 충분한 크기와 구분된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또 낙후된 시설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잠재적 이용자를 좌절시킬 수 있다.

공간의 외부 환경이 좋은 경우, 주변이 조용하고 안전하며 장난감도서관 등 유관기관이 근접하여 이용객에게 직접효과를 주고 넓고 자유로운 주차가 가능한 곳에 위치한 곳이 드물게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좁은 센터 내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잠재 이용자들의 가시권을 벗어나고, 주차장은 협소하며 공동육아나눔터 입구를 찾기가 어려운 곳도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위치한 경우 경로당의 소음을 견뎌야하거나, 아파트 외부 주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낮설음이나 불편함), 또는 주차게이트 통과라는 보이는 칸막이로 접근성에 한계를 지닌다.

세 번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상 어려움으로 3) **관리문제**가 있는데, 혼자 오는 아이, 운영시간 연장 관련 민원, 예산, 실적 산출, 명칭문제, 홈페이지 관리 등 6개의 범주를 망라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없이 오는 아이들 안전문제가 있어 둘러보내야 함 - 품앗이 등록된 경우 엄마가 다른 집 아이도 함께 참여가 가능 - 돌봄대상을 36개월 - 8세로 하여, 7세 9세 형제자매인 경우 분리하지 못해 함께 돌봐주고 있음 	혼자 오는 아이들 관리 문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 6시까지의 이용시간 더 연장 요청 - 소형 육아카페, 본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이 9시까지 운영해 달라고 함 - 1시-9시 운영, 오전 운영 요구 미실현. 주간 돌봄 공간 인력 예산 확보 필요함 	운영시간 연장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함. 공간이 협소하면 상시프로그램이 더 필요함 - 이용자 숫자와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호점 별 예산 사용 어려움. 통합 사용 불가 - 민간 건물, 공간 비품 유지관리비와 물품구입비 등 운영비, 프로그램 비 부족 - 운영비·인건비 배분 문제. 고정된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늘면 운영비가 줄어듦. - 낙후된 곳 리모델링 비용과 장난감 수리비용 지원 필요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역 공동육아나눔터 중복 이용자 많아 개소 별 실적 구분이 어려움. - 이용자 입력에 의한 DB 시스템 필요함. 별도의 엑셀 자료 제출하지 않도록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시청의 실적 요구 양식 상이함. 자체 엑셀 작성 번거로움. 	실적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나눔터의 '공동'이 '공동육아' 이미지를 주어 혼란을 야기함. - 적합하고 친근한 명칭이 필요 - 글로벌 이동센터, 공동육아카페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 통일된 부르기가 쉬운 이름이 필요함. 	명칭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프로그램 신청 시 홈페이지 다운되는 경우 많음. 시스템 정비 필요함. - 다수 공동육아나눔터에 이용자가 많으므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홈페이지

관리 문제

부모 없이 혼자 오는 아이들의 경우, 실무자 수는 부족하고 돌봐주는 부모가 없어 안전의 문제가 염려되어 오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나 묵인하는 경우도 있었고 등록회원의 자녀는 같은 품앗이 부모가 있으면 함께 놀게 하기도 하였다. 돌봄대상이 36개월에서 8세인 강진군 공동육아나눔터는 7세와 9세 형제를 분리하지 못해 지침에 벗어나지만 함께 돌봐주고 있다.

운영시간에 대한 민원은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주민들의 채워지지 못한 새로운 요구가 있음을 뜻한다. 인천 연구의 고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함박공동체에서 6시에 끝나는 운영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 오후와 야간에만 운영하여 오전에도 운영해달라는 강진군 부모들의 요구 등은 현재 예산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예산은 부족하고, 부족한 예산마저 사용에도 경직성이 크다. 사업비의 연간 상승분이 작아 인상되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운영비가 축소된다. 상시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하여 재능기부를 활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의 자구책을 쓰기도 한다. 또한 민간건물에 설치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의 부담이 매우 크다. 하나의 통합센터 산하에 복수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비가 국비, 지자체 또는 기업후원 등으로 다양한데 개별 공동육아나눔터별로 이용자 수가 다르고 운영방식도 상이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경우 센터 산하 공동육아나눔터의 예산을 모두 합하여 '통으로' 사용하면 어려움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실적관리와 보고도 운영상의 큰 어려움에 해당한다. 세종시는 인근 공동육아나눔터도 자유롭게 이용하므로 개별 공동육아나눔터별 실적 산출이 어렵다. 이용자가 입력하는 data base system 구축으로 실적을 파악하면 좋겠으나 이용대장을 파악하여 서면 제출하기도 하고 엑셀로 입력하기도 하는 등 아직 통일된 실적 보고체계가 미완성이다. 이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프로그램 이용자를 모집할 때 서버가 다운되는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명칭에서 오는 혼란을 겪기도 한다. 공동육아가 부모들이 재원을 각출하여 꾸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혼동을 주기도 하여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품앗이에는 공동의 의미가 있으나, 공간 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글로벌 이동센터, 공동육아카페 등의 이름도 사용되고 있는데 통일된 부르기가 쉬운 이름이 필요하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상의 마지막 난제는 바로 **4) 주민주도형 공동육아나눔터 지향의 문제**로 실무자들이 가장 막막하게 좌절하는 지점으로 보인다. 즉 주민주도형 공동육아나눔터로의 성장을 지향하는 가족품앗이사업의 목표와 달리, 자기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품앗이에 참여하며 가족품앗이를 개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모들에게는 사업의 목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목표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낯선 도시에서, 낯선 농촌에서 비슷한 처지의 양육하는 부모들이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함께 자녀를 돌보면서 이웃을 만들어 외롭지 않고 서로 알고 지내고 만나고 더 많이 함께 모이기도 하는 '느슨한 공동체로서의 공동육아나눔터'로 목표를 재수정하거나, 주민주도형 공동육아나눔터로의 성장을 위해 참여자를 수동적 대상으로 이끄는 활동비 지원을 멈추고 담당자에게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며, 장기적인 호흡으로 리더들을 세우는 것을 시도해 보는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품앗이 부모 위주로 운영되고 그분들은 자기 아이들 키우기만 관심 -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어 이웃의 자녀들까지 돌보는 확장성은 없어 보임 - 가족품앗이 부모의 주도성 키우려면, 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의 의식화 교육이 필요함 - 주민주도형 공동육아나눔터로 성장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함 	주민주도형 공동육아 나눔터 지향의 문제

3.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조건

현장 센터장과 실무자들이 제안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조건은 공간과 시간의 측면, 증설, 인력확충과 질 관리, 그리고 운영방법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조건에 1) **공간과 시간**이 있으며, 내부공간 및 외부공간, 그리고 운영시간 측면에서의 함의를 가진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평, 놀이공간 프로그램실, 품앗이공간으로 구성함 - 세종은 20평, 36평 두 곳을 제외하면, 50평 이상 최대 114평까지 있음 - 신도시 지역 이용이 훨씬 활발한데 공간이 훨씬 크고 쾌적하기 때문 - 부모들이 같은 공간에 초등학생이 많으면 안전에 불안해한다. 함께 이용하려면 공간이 분리되어야 - 다문화가족이 소외되는 경향, 충분한 공간 필요함 - 입구에 장난감 도서관 내부에 공동육아나눔터, 연령 별로 구분된 공간 	내부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관 내 위치하고 도서관과 어린이집과 근접 -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지면 품앗이 확대 가능/지역 내 사랑방 역할 가능 - 육아종합센터가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점 도담도담과 주민센터가 있음 -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가 사는 동네에 위치 - 동 종합복지센터로 이전, 쾌적한 근무환경과 넓은 공간 100평 - 민간아파트단지에는 키즈 룸이 모두 설치됨. 그러나 아파트 단지보다는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담당자 입장에서 좋음 - 어린이도서관 2층에 위치, 서산문화복지센터와 복합기능건물로 접근성이 좋음 - 건물 내부 안쪽에 있어 찾아가기가 어렵고, 도로변에 인접하여 영·유아보다는 초등학생 이용자가 많음 	외부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 오전 10-오후 5시까지 운영, 맞벌이가정 이용 1-2시간 품앗이 - 평일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곳이 12개소 중 4개소 - 토요일 9시-오후 5시까지 운영, 주말 이용자의 요구 반영 - 프로그램과 장난감때문에 영·유아와 초등생을 오전 오후로 나누면 부적절 - 평일 1시-저녁 9시까지 운영/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 덜어주고 부모 출장과 야근에 필요한 야간 돌봄 지원 '맘편한 야간 돌봄터'(4-9시까지 야간 일시 돌봄) - 6시까지의 이용시간 연장 요구 - 외부형 육아카페, 본점인 공동육아나눔터처럼 우리도 9시까지 운영해 달라는 요구 - 본 공동육아나눔터 1시-9시 운영으로 오전 운영 요구 미실현, 주간돌봄가능하도록 공간 인력 예산 확보 필요 	공간과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 오전 10-오후 5시까지 운영, 맞벌이가정 이용 1-2시간 품앗이 - 평일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곳이 12개소 중 4개소 - 토요일 9시-오후 5시까지 운영, 주말 이용자의 요구 반영 - 프로그램과 장난감때문에 영·유아와 초등생을 오전 오후로 나누면 부적절 - 평일 1시-저녁 9시까지 운영/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 덜어주고 부모 출장과 야근에 필요한 야간 돌봄 지원 '맘편한 야간 돌봄터'(4-9시까지 야간 일시 돌봄) - 6시까지의 이용시간 연장 요구 - 외부형 육아카페, 본점인 공동육아나눔터처럼 우리도 9시까지 운영해 달라는 요구 - 본 공동육아나눔터 1시-9시 운영으로 오전 운영 요구 미실현, 주간돌봄가능하도록 공간 인력 예산 확보 필요 	운영시간

먼저 내부공간은 충분한 넓이가 우선되어야 하며 쾌적해야 하고 놀이공간, 프로그램실, 가족품앗이 활동공간으로 구분되어 조성하여야 한다. 놀이공간도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가 가능하면서 안전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취식에 대한 이슈는 실무자의 업무과중을 막고 이용자들의 편의와 책임을 고려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취사는 금지되 간편한 간식이나 긴급돌봄 시 배달음식은 가능하도록 하되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의 외부환경은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가 밀집한 곳에 위치하면 활성화되기 쉽고 주민들이 왕래하는 주민센터나 문화복지센터 등의 복합건물 그리고 어린이들과 관련된 공공기관-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장난감 대여점 등과 근접 설치하는 것이 좋다. 복합건물에 입주하는 경우, 건물의 안 쪽보다는 건물 입구에 그리고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대로변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안전이 우려되면 이용 아동의 연령이 제한될 수가 있다.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주말 운영과 야간 운영을 통하여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인력문제를 해결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평일에도 오전, 오후, 저녁 운영이 가능하다. 평일,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나, 출장 야근과 같은 부모들의 긴급한 사유에 따른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동육아나눔터보다는 부모들의 접근이 용이한 특정 공동육아나눔터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지역 내 유사한 돌봄기관이 있는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육아나눔터 고유의 기능에서 순위가 떨어짐을 고려하여 설치를 재고해야 한다.

현장 운영자와 실무자들이 제안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보다 거시적인 조건에 2) **증설**이 있다. 증설 이유와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에 두는 것의 세 범주를 살펴보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지역, 건가센터 축소판으로서 많이 필요 - 새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서 초등 돌봄 요구가 늘어날 듯 - 초등생이 되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신설 계획 중이나 더 많이 필요 - 그에 대응하는 시장의 공약(연수구, 화성시, 세종시, 광양시) 	증설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민간아파트 단지에는 키즈룸이 설치되듯 공공기관에 설치되면 좋겠음 - 아파트 단지 내 입지, 외부 인근 지역까지 개방을 원칙으로 하나 거리가 있고 또 큰 도로로 분리되어 90%가 아파트 주민이 이용 - 오래된 아파트 관리동 2층에 2019년 신설, 아파트가 오래되고 맞벌이 가정도 많으나 이용이 많지 않음. 오는 사람만 옴. 경로당 소음이 들림 -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 개소, 걸어가기가 좋으나 주차 게이트 통과 어려움 	공공기관에 증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거주자 이외 인근에서도 이용 - 34평으로 넓고, 아파트도 평수가 넓음 - 주변에 주차가 쉬워 접근성이 향상됨. 배타적이지 않은 분위기 - 시와 함께 공간발굴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반대 안함. 초등돌봄(상시와 긴급) - 개방적인 공동육아카페를 아파트단지내에 설치하였으나 아파트주민 위주의 주도적 당번과 역할분담으로 아파트주민들만 사용함 - 외부 주민들도 운영주체가 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아파트에 증설	증설

먼저, 증설의 이유는 지자체단위로 1개소씩 운영되는 가족센터가 건강가정사업을 모체혈관처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설에 제한이 없는 공동육아나눔터가 그 분소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육아하는 젊은 부모들이 밀집하는 신도시나 새 아파트 단지 등에 위치한 외부형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민 소통과 연대 및 교류의 장이요, 육아부담 해소 및 공간제공의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시장, 구청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들이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증설을 공약화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경향, 가족의 필요, 그리고 건강가정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증설을 활성화의 가장 우선 조건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 경우 접근성이나 심적 편리함으로 주민이나 실무자의 호응도 좋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기로 한 지자체들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신축되는 아파트단지내에 키즈룸이 필수인 지역·대표적으로 화성시 사례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일차적인 증설 위치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단지 내 입지도 증설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광양시의 경우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아파트 명성을 고려하여 아파트단지에서 먼저 제안하여 설치한 경우로 경로당 공간을 변용하였다. 단, 아파트 밀집단지내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도 걸어서 갈 만큼 접근성이 좋지만 차량이용 주민을 위해 주차의 게이트 개방과 같은 편리성도 감안되어야 한다. 아파트 내 거주자 이외에도 거리낌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공공재로서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설치 전 아파트 주민들의 협약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고 잠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아파트의 공용공간을 공동육아나눔터로 활용하려면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의 세 번째 조건에 3) **인력확충과 질 관리**가 있으며, 그 안에 보조 인력의 충원,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처우 개선을 들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 노인 일자리사업 활용(인천 송도, 화성) - 아이돌보미사업에서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을 시간제 매니저로 활용(화성) - 시비로 시간제 매니저 기간제 매니저로 가족돌봄이 엄마 채용 - 서울시는 장난감 수리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함. - 시니어클럽과 자활센터 어르신 연계 혹은 전남청년일자리사업 청년 활용(강진) 	보조인력 충원	인력확충과 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분소 노릇 하도록 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실무자가 직접 센터 사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센터 직원들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 - 프로그램 기획 운영 가능한 직원 채용, 프로그램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 	우수인력 채용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표는 다르나 복리후생비는 센터직원과 동등하게 하고 회의 참여, 센터직원으로 순환배치 예정 - 소속감 부여 위한 순환보직 및 회의 참여 시킴 	처우 개선	

인력확충은 개소 당 최소 2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경험에서 나온 의견이다. 그리고 예산확충에 의한 인력 보강이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는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자활센터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을 고용, 장난감정리 등을 돕게 하거나 의무고용 장애인 또는 청년일자리사업의 청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부족한 국비예산은 시·군·구의 예산지원으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 주축으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무자를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재 광양시는 사업비절감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직접 진행이 가능하도록 석사학위를 지닌 실무자를 채용하고 있다. 실무자가 프로그램강사를 코디하는 수준이 아닌 직접 운영할 역량을 갖춘다면 보다 안정적인 상시 프로그램 운영이 될 것이다.

또한 외부형 공동육아나눔터 실무자가 건강가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센터사업을 숙지할 뿐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센터 회의 참여와 순환보직 그리고 동등한 처우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별도사업으로 시행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가족센터의 본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조건으로 4) **운영방안**에 네 가지 범주의 조건들을 거론하였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움센터는 실무자 3명 배치, 구청 담당자가 다른 점 등 경쟁력 뒤떨어짐 - 서대문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는 경쟁하지 않음. 어린이집 지원에 초점 두고 품앗이도 유치원생까지로 국한 - 키즈카페, 인력 풍부 청소 물품관리 가이드 역할 -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일을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음. 틈새 돌봄이 글로벌 아동센터-강진군 공동육아나눔터의 주 기능임 	경쟁기관과의 차별성, 확장성	운영방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내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설 시, 나눔터 간 벽을 없애고 별도의 관리자, 별도의 홈페이지 필요 - 프로그램 신청 시 다운되지 않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개선 필요 -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조례 및 장난감 대여 조례 마련 	조례와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는 가족품앗이 활동비 대신 프로그램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프로그램 이용이 incentive! - 개소별 예산이 아니라 합산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재량부여 - 장난감 교체비용과 내부 낙후 부분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 필요 	예산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돌봄 119' 이벤트로 필요물품을 박스에 넣어 가정으로 배달, 지역 뉴스 통해 기업후원을 이끌어내어 홍보 효과까지 - 공동육아나눔터를 가족센터의 브랜드사업으로 삼아 홍보 - 부모교육, 문화, 상담 등 센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실시 	가족센터와의 관련성

운영 방안

VI. 결론

유한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바, 주민 접점이 많고 좋은 대표 브랜드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센터장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합센터의 분소로 적극 활용하도록 육아하는 부모들에게 교육·문화·상담의 통합 사업을 접하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10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299개소가 설치·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전국단위로 운영되는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사업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8개 지역을 선정하여 현장연구를 진행하였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담당하는 가족센터의 센터장이나 실무자 대상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 기능, 운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활성화 조건의 세가지 주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동육아나눔터 발전방안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에서 제안된 '운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인력부족문제, 공간문제, 예산문제 및 실적관리문제의 개선을 통하여 공동육아나눔터는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먼저, 야간돌봄이나 긴급돌봄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더라도 공동육아나눔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자의 회의 참석, 출장, 휴식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2020년 야간 운영의 근무자를 위해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연중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였다. 특히 부모의 동행이 없는 초등 전담돌봄의 경우 아동의 안전한 관리와 프로그램 실시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인력 2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담당자의 경험과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정액의 예산 범위 내에서 호봉을 인정하는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사업비를 보장하면서 호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방식을 변경해서 경력자의 계속 근무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인력선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가족센터와의 상생관계를 위해서 센터 조직 상 안정적인 위치를 부여하여 회의 참여 및 모든 사업에 대한 교육 참여를 통해 소속감을 제고하고 센터 사업을 숙지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간의 문제는 규모와 구획 및 일정 수준의 쾌적함 유지에 있다. 현행 지침의 공동육아나눔터 최소규모는 66㎡이며 가족센터 건립 시 최소규모는 99㎡이다. 공동육아나눔터가 활성화된 세종시의 경우, 넓은 공간이 관건이었다. 상시프로그램이나 품앗이그룹이 이용하는 경우 단순 공간이용자는 밖으로 나가야 하는 문제, 한 공간에서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첫째, 경쟁기관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확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구만의 별도 육아지원사업 또는 민간시장의 키즈카페 등과 비교할 때,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이나 환경 등이 뒤떨어질 수 있으나 가족센터와의 통합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육아지원이 아니라 가정을 단위로 부모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하는 고유한 기능을 잘 살려야 한다. 한 지역에서 다른 기관,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봄전담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는 없으며, 지역 내 기관들의 다양성, 주요 서비스와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보다 차별적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여러 개의 공동육아나눔터 증설 단계에서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군·구 조례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공동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연계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다수의 이용자 접속 시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예산 사용에 있어서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공요금 납부 여부와 금액 그리고 실무자의 연차 등이 상이하여 각 지역마다 사업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국비예산과 지자체 예산도 투입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2개 이상 운영해야 하는 경우, 개소별 예산사용이 아니라 합산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여 유연화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부족은 인력과 공간 내부 시설 그리고 장난감 구비 등에 직결되어 쾌적한 환경구축을 방해하므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센터와의 관련성은 공동육아나눔터만의 고

이용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활동이 제한되거나 안전이 우려되는 것이 여러 공동육아나눔터의 현실이다. 별도의 방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공간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인테리어 방안을 강구하고 낙후화에 따르는 시설 설비의 개·보수 비용도 필요하다.

예산의 문제는 전체 예산의 규모와 예산 내역 간 유연성 그리고 국비지원 공동육아나눔터와 지자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함께 운영하는 센터의 관리문제이다. 먼저, 2019년부터 개소별 49,420,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확충, 쾌적한 공간의 유지를 위한 증액 및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의 기준에 의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인건비 기준을 따르면 사업비와 운영비가 축소되므로 현장에서는 사업비와 운영비 보전을 위해 경력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 활성화 측면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할 예산이 필요하다. 개소별 이용자 수에 따라 사업비 차등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소재 건물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지불하는 공공요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배정하여 사업비 감소를 감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현황 파악과 실무자 부담 경감을 위해 bar code 혹은 QR코드를 활용한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 ‘가족품앗이를 중심으로 주민주도에 의한 지역의 돌봄공동체로 성장’이라는 목표에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그 현실성 성찰과,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고 실적 중심의 양적 평가도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내 다른 돌봄기관에 비해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비교적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의 질적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을 검토하여 사업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먼저, 공간제공, 프로그램 제공, 가족품앗이 기회 부여를 통한 양육 부모 지원 둘째,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셋째, 상시 및 일시돌봄과 긴급돌봄 제공의 기능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공동체’를 간접 지원하는 허브 역할에 모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되어 왔다.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이미 다양한 돌봄기관이 분포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큰 대도시지역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고 그들 간의 교류와 소통, 연대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다른 돌봄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서는 맞벌이가정 초등전담돌봄의 기능까지도 담당해야 할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 기능과 운영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지역적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마다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사업과 연관될 때 비로소

그 설립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가족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분소’로 활용할 수 있는 상생관계에 있다. 2019년 통합센터의 기능을 확대,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로 전환, 생활SOC복합화로 추진한 이후(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선정된 지역에서는 같은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프로그램 개발 지원, 실적 관리, 자원발굴과 연계, 회계업무지원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여 외부형 공동육아나눔터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여러 돌봄공동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공유 및 자금 조성 과 운영 등에 관한 상호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급·간식비나 프로그램 재료비 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지역 돌봄공동체들의 거점(허브역할)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셋째, 전국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가 활성화되어 육아부모들을 지원하고 건강가정사업을 국민들이 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센터 분소 역할로 공동육아나눔터의 입지를 세우고 증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역 내 어디에, 어느 정도 증설할 것인가의 문제는 객관적인 수요조사 뿐 아니라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센터장과 실무자의 감각, 여기에 지자체의 협력이 주효할 것이다. 각동에 한 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목표로 증설 중인 세종시에서는 육아부모가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보편적인 기관으로 시민들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인식한다고 한다. 그에 따라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다각도로 기여하고 있다. 젊은 부모들이 밀집한 지역의 육아지원과 주민 소외극복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는 증설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반응하여 세종시, 화성시, 광주 광역시 남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발 빠르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증설 위치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공공건물이 좋으며, 젊은 육아부모가 밀집한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2020년 7월 국토교통부장관 공고(2020-933호)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 초등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확충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더하여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1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하면 주민들의 의사와 시·군·구 및 운영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아파트단지 내 초등돌봄시설의 일환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의 합법적 통로가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증설 시 공간 특성에 이용아동의 연령이 영·유아 및 초등학교 모든 연령층의 이용을 전제로 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공간구획과 설비, 상시프로그램·가족품앗이 활동·수시 공간 이용 등 활동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증설에 따른 실적관리나 예산관리 및 인력관리의 단위도 복수의 공동육아나눔터

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중복이용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실적산출시스템이 필요하며 다수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센터의 업무과중 방지를 위한 자동 DB시스템이 필요하며, 총괄 인력의 지위를 가족센터사업과의 관련성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맞는 팀장급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함께 건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형 공동육아나눔터를 증설할 경우 운영기관인 가족센터와 시·군·구의 업무분장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 섭외와 선정 및 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과중한 부담이 없도록 하면서도 운영자들의 know-how를 반영하여 최선의 공동육아나눔터로 증설되어야 한다.

넷째, 기존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가족센터는 각기 제 기능을 다하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인력과 공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예산사용 방안 및 운영방안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지역 특색에 맞게 진화하여 다양화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 공통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활성화에 장애가 되어 변경되어야 할 지침은 개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상시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전국 공동육아나눔터의 역동적 전개상황의 파악, 지역별 다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도 적절한 홈페이지 지원 및 종사자 교육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에게 건강가정사업의 비전 속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교육하며, 여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통점을 중심으로 상호학습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현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당사자들의 문법과 용어로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추(hub)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예산만으로 부족한 여건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지원으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다. 화성시 사례에서처럼 시간제·기간제 보조인력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일자리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보조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공약을 가족센터를 통해 구현하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만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 나름의 독자적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문화·상담 사업에 접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육아나눔터를 가족센터와 관련지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해야 한다.

끝으로 가족센터는 모든 읍·면·동에 설치할 수 없는 가족

센터 대신 외부형 공동육아나눔터가 센터의 분소기능을 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가족센터의 대표브랜드로서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교육·문화·상담사업을 전개하며 전담인력을 포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외부형 공동육아나눔터 증설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해야 하며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실제 운영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 김선미·이승미·노영주·송혜림·조영희·김소영(2011). 지역 돌봄 기능 활성화 방안. 여성가족부
- 3) 김숙자(2018). 부모가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육아정책 포럼, 56, 24-29.
- 4) 김영천(2013). 질적 연구 방법론. 아카데미프레스.
- 5) 김효정(2019). 주거지 육아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환경적 지원요소.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2).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운영매뉴얼,
- 7)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8) 여성가족부(2021). 2021년 가족사업안내.
- 9)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ogefkorea>
- 10) 유해미·김문정(2013).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11) 이나련·임예슬(2017). 경기육아나눔터의 매뉴얼 및 발전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12) 정미정(2019). 공동육아참여 어머니의 공동육아참여효과 성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차성란·권혜진·조정현(201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성과발굴 및 운영모델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14) 차성란(201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 전략.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87-210.
- 15) 차성란(2018). 제주지역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실태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2), 1-24.
- 16)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2021 가족센터SOC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

- 투 고 일 : 2021년 12월 26일
- 심 사 일 : 2022년 01월 08일
- 게재 확정 일 : 2022년 02월 22일